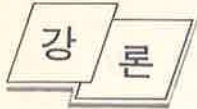


대림 제 2주일(인권주일)
제 1독서 : 바룩 5, 1-9
제 2독서 : 필립 1, 4-6. 8-11
복 음 : 루가 3, 1-6

순정이

“너희는 주의 길을 두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루가 3, 4)



그저 측은하고 불쌍해서



박종근 신부 / 천호 성지 피정의 집

겨울 바람은 나무에 부딪쳐 가을잎을 떨구고, 나무엔 앙상한 가지만이 남아 있는 계절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 할머니와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할머니, 영감님 밋지 않으세요?”
“신부님, 왜, 안 미워요!”
“할머니, 미운데 왜 그렇게 잘 해주세요!”
“신부님! 그저 불쌍해서 그래요.”

사실, 할머니의 영감님은 젊었을 때부터 바람을 자주 피우다가 급기야는 할머니를 버리고 작은 마누라까지 얻어 살다가 몇 해 전에야 병이 드니까 할머니 집으로 왔다는 것이다. 미움과 패심한 마음보다는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더 들기에 대소변 받아내며 수발하시던 할머니...

지금은 대림절, 세상에 오시는 하느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하느님이 왜 세상에 오실까? 무한하신 분이 왜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되실까? 그리고 범죄로 하느님

을 배반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고통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실까? 도대체 무슨 마음이 드셨기에 그러할까?

하느님의 마음은 측은지심입니다. 하느님은 연민의 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느님의 위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성서 곳곳에서 특별히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동네에서,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를 예수님은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외아들을 소생시키시며(루가 11장 11절~15절), 당신 주위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을 ‘측은히 여기시어’ 가르쳐 주시고(마르코 6장 34절), 또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마태오 14장 14절). ‘잃었던 아들’의 비유(루가 15장 20절)에서 집을 뛰쳐 나가 제멋대로 살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진정,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은 의롭고 슬퍼하고 불쌍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측은지심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어 그를 돕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엔 의롭고 불쌍하고, 잘못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측은하게 여기어 받아 주고 용서하고 도와 주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떨런지...



마음속의 제자리를 찾자

육원태(토마스 아퀴나스)

얼마 전 잡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금언(金言)으로 삼아야 할 글귀를 보았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제자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세태이다. 그것도 가뜩이나 각종 사고가 잇따라 총제적 난국이니 뭐니하는 뒤숭숭한 때에 보았던 것이어서 그런지 매우 음미할만한 말이었다.

맹자(孟子)가 위왕(魏王)과의 문답에서이다.

왕도(王道)를 지킴에 유련지락(流連之樂)과 황망지행(荒亡之行)을 삼가라는 게 그것이다.

좋은 나쁘건 우리들은 옛 성현(聖賢)들의 말을 자주 인용한다.

아무리 현대(現代)를 살고 초스피드 시대에다 제3세대, X세대를 들먹이는 세상이라 한들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변할리 없는 것이다.

앞에 인용한 유련황망(流連荒亡)도 나름대로 생각하자면 이 바빠 돌아가는 세태에 정신을 바짝 차려 제자리를 지키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굳이 풀어 얘기하면 유(流)는 뱃놀이를 하다 하류로 내려가 돌아오려 하는 생각을 잊음이요, 연(連)은 그와 반대로 뱃놀이를 하며 강(江)의 상류(上流)로 거슬러 올라 갔다가 즐거움과 놀이에 정신이 빼앗겨 집으로 갈 것을 잊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즐거움에 더해서 황(荒)은 들에 사냥을 나선 후 그 재미에 돌아감을 잊음이요, 망(亡)은 술 마시는 즐거움과 그에 취해서 깨어나고 헤어나지 못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모두가 자기 본분을 잊고 말초적인 즐거움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에 미루어 생각하자면 우리의 사는 것도 매양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본다.

여기서 얘기하는 즐거움(樂)과 모든 행동(行)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하고 돈을 벌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하는 모든 일이 어찌 생각하면 배를 타고 떠나 돌아올 줄 모르는 행위이거나 그 자체에 정신이 팔려 일 어설 줄 모르는 한 단면일 수도 있다.

또 행동에 집착하다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어설픈 사고(思考)를 닦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일에 비견하자면 차(茶)를 마시고 컵을 아무 데나 놓는다거나 신발을 함부로 벗어던지거나, 옷을 벗어 팽개치거나 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

거리에 나가 주차위반을 일삼고 과속을 하고 줄을 서

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이 테두리에 들어갈 수 있다.

2천수백년 전에 예를 들어 뱃놀이, 사냥, 술 마시기의 얘기이지 기실 놀이방법이 변천한 현대에 와선, 그것이 골프일 수도 있고, TV일 수도 있고, 또 그 혼한 고스톱 화투판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면 정치가가 제자리를 찾으면 국가가 태평해지고, 공무원이 제자리를 찾으면 국민복(國民福)을 이룬다.

다리 무너지는 일도 없고, 세금에 손대는 공무원도 없어질 것이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질서있게 살자는 함축이다.

이 해도 차츰 저물어 간다.

어느 해 어느 때고 항상 일이 없었던 건 아니다. 금년 역시 일이 많았음에는 다른 해와 비길 바가 아니다.

정치판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비리시비에 휘말리며, 전국 각지에서 무너지고, 부숴지고, 터지고, 불에 타는 일이 다반사였으므로 금년 한 해 역시 무슨 랭킹이라도 끼일 일이다.

연말이 오면서 차츰 들뜨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간다.

향용, 망년회네 무어네 시끌벅적한 연말의 분위기가 또 시작될 모양이다.

모든 것을 잊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나 해가 바뀐다 해서, 망년회를 지냈다 해서 모든 것이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붙잡자.

떠나가는 해는 붙잡지 못하더라도 흔들리고 기울어져 자칫 자신을 찾지 못하는 들뜬 마음을 붙잡자.

12월 한 달 우리 모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떠났으면 돌아오고, 정신을 잃었으면 깨어나자. 그리고 주위도 둘러보자. 그 동안 찾지 않았던 내 자리를 찾아보자.

숲정이 산책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박남숙(루시아) 씨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나의 경우를 보면 나는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내 기호에 맞는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다보니 나는 신앙인으로서 끊임없이 만나고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해 무관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나에게 '무지개 가족'에서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해 살고 있는 박남숙(루시아·45세)씨를 만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박남숙 자매님을 소개한다.

'무지개 가족'은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20여명의 장애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중도 장애자들이다. 중도 장애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장애자가 되었기에,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데 다른 장애자들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남숙 씨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현재 자신들의 모습보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큰 고통이라고 한다.

외면당하는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봉헌하고 있는 박 루시아 씨. 한 때 수도성소에 관심을 가졌으나 어머니의 병환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이 오늘을 있게 한 것이다.

그녀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늘 생각해 오던 중 전주교구 사회복지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니 도와달라는 청을 받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다. 처음에 박 루시아 씨는 장애자 4명

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고, 그녀는 장애자들을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하는지 아무런 사전지식도 없이 무작정 뛰어들어 몸으로 부딪치며 배워나갔다. "처음에는 장애자들이 안쓰러워 내가 직접 해 주고, 넘어지면 빨리 뛰어가 일으켜주곤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것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부족한 그들을 동정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진정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힘겹게 하고 있는 몸짓은 바로 자신들과의 싸움임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침묵〉...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나와 다른 점이 없다는 진리를 배웠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흐르는 눈물에서 뜨거운 정이 담겨져 있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장애자들을 볼 때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생각으로 그들과 거리감을 만들고 있다. 장애자들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받는 어려움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사실 몸이 불편하고 아픈 것보다는 다른 이들로 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박남숙 씨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이곳에 방문하러 오는 사람들도 무엇을 해 줄까. 무엇을 도와 주어야 하는지 물어 보죠. 그러나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해 주는 것보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라고 말한다. 그녀의 바람은 '무지개 가족'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무지개처럼 각자의 색깔대로 아름답게 피어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군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담담한 모습은 마치 깊은 숲속에 숨어서 핀 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은은한 사랑은 '무지개 가족'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삶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나는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만남을 이루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게 된다.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곧 내게 해 준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자꾸만 자꾸만 내 가슴에 파고드는 것은 왜일까?



특집 -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조작된 간첩사건과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인격적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은 개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배경이나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인간 자체로서 누리는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인권이라 한다.

우리 교회는 인권의 신성 불가침성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불의한 국가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철저히 유린된 인권이 있다면, 교회가 그 인권을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증오와 대결의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은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한반도에도 일고 있다. 그리하여 반목과 질서와 대결이 아닌 화해를 확인하고 한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축제를 맞이하겠다는 의지가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냉전논리에 바탕을 둔 대결의식과 상대방 체제에 대한 불신의 골이 너무도 깊다. 우리는 이것을 거둬내야 한다. 부끄러운 과거는 과감히 끄집어 내 스스로 치유하고, 사랑과 진실 그리고 평화를 약속하는 내일을 맞이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험난한 역경을 헤쳐왔다. 가혹한 수탈과 착취, 인권이라는 게 무언지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일제 식민지를 겪었다. 또한 우리의 힘보다는 강대국의 전리품으로 '8.15 해방'을 맞았지만, 식민지 잔재청산은 뒷전으로 밀린 채 민족의 분단과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겪어야만 했다. 이 후 이 땅에는 독재의 서슬이 광란의 춤을 추었고, 이 장단에 맞추어 국가권력은 독재



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우리의 최근 역사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의식과 패배주의에 바탕을 둔 이기주의를 낳게 했고, 급기야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인륜적인 작태가 연일 발생하는 혼란의 시대를 가져왔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의 불명예를 걸머진 우리는 그간 반공이 전부다라는 흑백논리 속에 살았고, 이 속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고통을 받고 사라지거나 현재도 고통 속에 있다.

지금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이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특히 정치적인 신념을 지키다 양심수인인 된 사람들은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거나 국민으로서의 권리조차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치적인 신념과 무관하게 거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권 침해를 받으며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도 분단국가와 반공지상주의라는 명제가 썩어져 있고, 이 명에 속에 갇힌 채 이웃의 형제를 몰라라 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최소 7년 이상의 삶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고

솔잎 농축액

· 피를 맑게, 고혈압, 약성콜레스테롤 제거 · 기관지 천식, 노인성 치매에 효능 입증 · 「신비의 솔잎 치료법」책으로 출간(유태중 박사)(솔잎주도 판매합니다. 판매원 모집중)

이종화(방지거) · 기정남(파비올라)

☎ 225-0548, 221-0956

성신당 한약방

이 흥 재(요셉)

우아동 기린중학교 정문 옆

☎ 245-9787~8

40년 전통 성심당 한약방

이 상 범(필로리아노)

중앙시장 육교 밑

☎ 252-4544, 85-0173

조주장 한의원

비만클리닉 개설 (스트레스성 피로회복 및 통증치료)

조 주 장(이나시오) 차 숙(글라라)

코야건너편(중앙시장 입구)

☎ 254-6382

인권

박대길(벨라도)

있는 장기수가 75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월북자 가족사건, 월남자 가족사건, 납북어부 사건, 재일동포 사건, 일본관련 사건, 민주운동 유학생, 월북기도, 조작사건, 남파 공작원 기타 등이다. 이들 중 북한에서 납파된 사람은 25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조작된 간첩사건'이다. 이들은 어두웠던 시절에 간첩사건으로 보도되었고 그 중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사건은 조작되었고 억울한 누명이 씌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호소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잘못된 선입관과 무관심으로 이들의 엄청난 고통에 애써 무관심해 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관련자 중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가난한 이들이며, 간첩행위를 했다는 물적증거(무전기, 난수표, 권총 등)는 제시된 예가 없고, 그 간첩행위의 내용도 거의가 본인의 자백에 의한 하찮은 '국가기밀' 누설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영장도 없는 상태로 불법 연행되어 두세 달씩 밀실에 감금된 채 수사를 받았는데, 가족들은 물론 변호인조차 면회할 수 없었고 온갖 유형의 살인적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수사기관

의 탈법적 수사는 '간첩이기 때문에' 아무도 제동을 걸 수 없었다.

분단 50년의 세월 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진 혈육을 사이에 두고 기독교자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 그 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그 얼마이며, 오랜 옥살이로 몸도 마음도 가정도 망가진 사람들이 그 얼마인가! 그들의 희생을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폭력 앞에 좌절하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역사의 뒷공무리를 따라왔는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감추어진 사실을 밝혀내고,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거나 희생당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어둡고 참담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은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는 미래사회로 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작업이다.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은

개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배경이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인간 자체로서
누리는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요심이 김병오

전국에서 세금도독질을 할수 있었던것은...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원이 장님 뱀어리들만 있었기 때문이겠지!



이런때 못해먹는놈이 바보 천치야 나도 입자없는돈 먹고보자!



고지서의 절반 세금을 나에게 내면 전액 납부한 영수증을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모친(김임성 헬레나·71세)을 잃은 저희들을 위로해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시는 주교님, 신부님, 그리고 모든 신자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장남 엄기춘 차남 엄기봉 신부

사무장 구함

1. 자격: ①영세한 지 3년 이상(남) ②운전면허 소지자 ③전문대 이상 졸업자 2. 제출서류: ①자필이력서(연락처 명기) 사진부착 ②세례증명서 1통 ③본당신부님 추천서 1통 ④주민등록등본 1통 3. 서류접수 및 문의: 월명동 천주교회(0654)42-2041

저농약, 천연조미료, 내장산 지하수 전량 태양초만 쓰느!

순창성당 김치

(판매중: 각 본당 매장)

순창성당 김장김치

(주문접수중: 11월20일까지, 12월배달)

문의: 순창성당영농조합

☎(0674)53-8040, 52-1004

성소모임 미래내 성모성심 수녀회

- 때: 12월11일 오후 2시
- 곳: 가톨릭센터 회의실
- 자격: 30세미만 고졸이상
- 문의: (0653) 53-8395
여산성당 수녀원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 75-0550

청년묵상기도모임 (강의·묵상·나눔)

- 때: 매월1, 3째 수요일
오후 7:30(첫모임 12월7일)
- 곳: 가톨릭센터 3층 소강당
- 문의: (0652) 74-9262
전교 가르멜 수녀회

가톨릭 신문사 전주지사

이관영(토마)
김현자(말가리타)
가톨릭센터 3층 338호
☎ 85-1275(FAX겸용)

인간 존중은 민족의 통일과 번영의 토대

교회가 지향하는 하느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느님의 모상이기에 존귀한 존재이고, 인권의 신장은 바로 복음의 요구이자 교회 사명의 으뜸 자리를 차지합니다.

1. 가정은 사랑과 생명의 보금자리로서 우리의 미래가 이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의 올바른 인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교육의 시작은 바로 태교인데, 오늘의 부모들은 낙태를 통하여 사랑과 책임이 아니라 불의와 폭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인권의 전제 조건인 생명권을 임신되는 순간부터 보호, 존중하지 않는 한 '도덕성 회복'과 '정의 구현'의 외침은 공허할 뿐입니다. 연간 150여 만 명의 태아가 살해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모두가 함께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을 모태로 하여 낙태 일반화를 가능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 제 135조의 삭제를 거듭 촉구합니다.

2. 바른 생활, 공정한 생활은 사회 공동선의 본질입니다. 성수대교의 붕괴 참사는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공공(公共) 공사 현장의 덤핑입찰, 부실 감리, 구조적 뇌물비리 등의 부조리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 공사에 정부도 책임이 있으며, 당국의 안일 무사한 비밀 행정과 관리 소홀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욱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생존권과 직결된 원자력 발전소 시공에 대한 의혹입니다. 특히 최근 완공하여 시험 가동에 들어간 영광3·4호기가 부실 공사였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결코 생산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 비인간적인 대우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2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지만,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대안으로 채택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는 그 발상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임

금체불, 폭행, 산재 등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의 인권문제는 더욱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내지는 적극적인 검토로 대처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4. 1995년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한과 북한에 상존하는 각종 인권 침해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남한에는 상당수의 '양심수', '간첩조작사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북한에는 인권의 사각 지대인 사상범 수용소, 시베리아 벌목지 등의 인간 이하의 생활이 이미 수차례 폭로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하게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인권이 하루 속히 회복되기를 촉구합니다.

5. 1995년에는 제4차 세계 여성 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우리는 이 대회가 여성의 기본권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도 여성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낙태까지도 마치 여성의 기본권인 양 오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상대적으로 많은 권리를 침해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남녀 성 차별에서 오는 불의는 법과 제도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오래된 인습과 전통에 따른 차별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6. 끝으로 오늘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인간 존엄성 침해에 알게 모르게 동조한 잘못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불충실함으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자신부터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가치관과 정의 실천을 위해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계와 사회, 홍보 종사자들도 더욱 진실되게 우리의 문화 가치를 되살릴 수 있도록 본연의 본분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광복 50주년에 남녘과 북녘 땅 곳곳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꽃피도록 인간 존중과 고통 분담에 다 같이 노력합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경갑룡 주교

원구의 모든 것

발육완구 · 학습완구 · 각종게임기류

아카데미 완구

아기들 세상

박 한웅(요한)
☎ (0654)446-1853

김 현 자(수산나)
(0654) 43-4536

오현 선기정 서예 개인전

명륜 서예학원 원장입니다

- 축하미사 : 12월3일(토) 오후 3시 주례-김치삼 신부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2월3일~8일
- 장소 : 전복예술회관 1층 1실 ☎221-6492

피아노 현금가 무이자 할부판매
삼익피아노 코아특약점

디지털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및 각종 악기

코아백화점 3층
☎ 86-1181,80-1309

교구소식

❖자선의 날 2차 헌금

- 때 : 12월11일(일)
- 곳 :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천호 피집 안내

- 때 : 12월6일(화)
- 주제 : 믿음과 기도
- 강사 : 강덕행 신부
- 때 : 12월10일~11일
- 주제 : 믿음의 기쁨
- 강사 : 범석규 신부
- 문의 : 73-6600

❖사랑의 다리 후원회 월례미사

- 때 : 12월5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성직자 묘지미사

- 때 :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10시30분
-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바랍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도·농 잔치마당

- 때 : 12월2일~4일
- 곳 : 전동 성당
- 주최 :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 우리밀 살리기운동 전북협의회

❖대전교구 전화 사서함 '말씀의 전화'

- 개설
- (042) 152-안내말씀-3217(삼위일체)
- 주일강론 말씀을 전화로!

● 정소모임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

- 때 : 12월11일 오후2시
- 곳 : 창인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3) 842-4132

❖거룩한 말씀회

- 때 : 12월11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 84-2276

❖동정 성모회

- 때 : 수시로 성소상당
- 문의 : (0652) 222-5269



■ 권해드리는 책 ■

- 너와 내가 사랑할 때
앙드레 세브/하정옥
2,500원/성바로모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호소는 바로 너와 내가 사랑할 때 가능함을 구체적인 체험들로써 일깨워주는 사랑을 위한 폭넓은 묵상서

• 바로 지금입니다

- E.카터/박동연
3,000원/성바로모달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도록 이끌어 준다.

• 화해를 살다

- A.첸치니/성엄
3,000원/성바로모달

인간에게 있어 죄란 무엇이고 이 죄를 인간이 어떻게 용납하며 신적, 심리적 악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심리적 각도에서 다룬 책이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작은 실천으로 '지구살리기'

경제 운전

연비란 연료 1ℓ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것. 차량의 특성, 연료의 질, 주행속도, 운전습관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자동차의 수명을 길게 하고 연료를 아끼려면 시동을 건 후 열효율을 높인 다음, 천천히 출발하는 것이 좋다. 또 엔진의 공회전도 막아야 한다. 1분 이상 정차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도록 한다.

건전지 사용

건전지는 사용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망간 건전지는 수은이 들어 있지 않지만 알칼리 건전지는 미량의 수은이 들어있다. 또한 손목시계나 카메라에 사용되는 보턴 건전지는 수은량이 많고 핸드폰에 사용되는 충전식 건전지로 카드뮴이 들어있다. 건전지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도록 하며 되도록이면 충전식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9기 '95학년도 원아모집 새나라종합학원

- 장 동 철(아오스당)
- 김 은 숙(까리따스)
- 서신동 우신APT 입구
- ☎ 72-8415, 8465

'95 유치원생 모집 호남옹변미술종합학원

- 유 병 철(베드로)
- 박 경 애(안젤라)
- 호 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 새호남(전주역 앞) 243-1413
- 호 자(삼천쌍용APT 앞) 221-8331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 전주점 관동로 88-6951
-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헬레나)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현대 미용학원

- 미용과·피부과
- 메이크업·분장과
- 김 금 순(테레사)
- 전주시 진북1동 373-3
- ☎86-2211, 254-3003

인기 주유소

- 가정에 탱크노리로 석유, 경유, 신속배달합니다.
- ※ 교우 기사 구합니다.
- 안 인 기(예로니모)
- 김 순 선(수산나)
- ☎ 211-6114, 212-0176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

1. 외곽교구 초청의 밤: 오늘 후 7시30분
* 외곽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바람
 2. 영세자 면담: 9~10일 후 3시 저녁미사 후
영세자 집중교리: 13~16일 후 3시 저녁미사 후
영세식: 18일 전 9시
 3. L.M 연차 총 친목회: 10일 후 8시
* 각 Pr은 열심히 준비하셔서 참가바랍니다.
 4. 울뜨레아 단합대회: 12일 후 6시 성숙회관
 5. 세실리아 성가대 신단원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성탄 성가연습: 매일 저녁미사 후에 있습니다.
 6. 모임: ①울뜨레아(오늘 장엄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6일 어머니미사 후)
③장우회(11일 장엄미사 후)
 7. 다음주(11일)은 자선 주일입니다: 2차헌금 있음
 8. 아직까지 교부금을 신입하지 않으신 분은 너그럽게 신청해 주세요.
요.
 9. 금주 청소: 중노 8.9만
저주 청소: 중노 10.11만
- 지난주 봉헌금: 1,000,400원 □ 2차헌금: 2,377,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점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상호
사목회장 황길영

1. 대림절 성서 특강: 준비물-성서, 필기도구, 교제
회비-5,000원(교제비 포함) 낮반-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
저녁반-매주 수, 금요일 오후 7시
 2. 다음주일은 자선주일(2차헌금 있음)
 3.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4. 구역분과회: 6일(화) 오전 10시
 5. 자모회, 안나회: 8일(목) 오전 10시
 6. 대건회 송년회: 9일(금) 오후 6시30분
 7. 여성분과회: 10일(토) 오전 10시
 8. 오세회: 11일(다음 주일) 광식미사 후
 9. 해설자 모임: 11일(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10. 꾸리아: 11일(다음 주일) 오후 2시
 11. 청년회: 11일(다음 주일) 저녁미사 후
 12. 성탄 판공성사: 13일(화) 다가동, 고사동, 14일(수) 태평동, 기
타반, 15일(목) 진북동, 16일(금) 중앙동, 완산동, 17일(토)
학생, 직장인 성사시간: 13일~16일 오전 10시~12시, 오후 7
시~9시, 17일(토) 오후 3시~5시, 오후 7시~9시 * 판공성사표
사무실에서 드립니다(95년도 달력도 드립니다)
성당 청소: 12월10일(토) 겸손하신 자의 모후Pr, 셋별Pr
금주 전례: 해설-조옥례, 독서-김영덕 부부
봉헌-김병화 가족
차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육경수 부부
봉헌-황갑순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48,830원 □ 교무금: 2,078,800원

*** 상 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입니다.

1. 오늘은 교무금 및 사제 양성 후원회 회비 납부의 날
2. 모임: ①꾸리아, 요세화-공식미사 후 ②자모회, 안나회-다음
주일 3. 성체강복 및 성시간: 8일(목) 저녁미사 후
4. 구역미사 및 판공: 6일(화)-공기, 7일(수)-서당, 8일(목)-
내정, 9일(금)-의암
5. 예비자 집중교리: 6일(화)~10일(토) 저녁미사 후, 수녀님
6. 구역 모임: 6일(화) 서당, 내정, 공기, 백암, 신흥, 어둑, 마치
7일(수) 수원, 하신, 상신, 원신, 석장, 의암
7. 성탄절 제대꽃 봉헌바랍니다: 수녀님
8. 다음주일은 자선주일: 2차헌금 있음
9. 탈상: 11일(일), 신흥리, 서정회(안나) 대
10. 금주 청소: 구세주의 모친Pr
11. 차주 청소: 신비로운 장미Pr
12. 금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김봉길 ②주영례
봉헌-이명수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정광섭 ②김금자
봉헌-장만수씨 부부

· 대죄
하느님을 거스르고 인간의 이성을 거스려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
리는 죄로써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중요한 일이나 행위이고 2)그
중요성을 완전히 알고 3)자유의로 승낙할 때이다.
□ 지난주 봉헌금: 338,500원 □ 교무금: 481,000원
□ 2차헌금: 141,9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

1. 꾸리아: 12월4일(오늘) 오후 2시
 2. 청년회 월례회: 12월4일(오늘) 저녁미사 후
 3. 사목회 월례회: 12월6일(화) 저녁 8시
 4. 자모회 월례회: 12월7일(수) 오전 10시30분
 5. 94년도 성탄 판공성사: 초·중·고등부-12월10일(토)
오후 2시
합동 참회예절-12월14일(수) 저녁 8시
※ 판공성사는 미사 전후 언제나 자유로이 보편 됩니다.
 6. 영세식: 12월17일(토) 저녁미사
 7. 예비자 집중교리: 12월13일(화)~16일(금) 매일 저녁미사 후
 8. 성가대 성가연습: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
 9.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 12월18일(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1,034,950원 □ 교무금: 1,863,0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현

◎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

1. 금주: ①성소후원회 회비 납부주일
②계속 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③요세화-후 4시
 2. 빼에따회: 7일(수) 오전 11시
 3. 다비드회: 10일(토) 오후 3시
 4. 차주: 자선주일 2차헌금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5. 추계 판공성사 안내: 12월6일-10일, 13일-17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30분-5시)
성사표 배부 및 사목회 변담: 총연관, 판공성사-사랑방
 6. 초등부 교리교사 임원 개편: 회장-윤정희(아가다)
부회장-배인선(노엘라) 총무-권미숙(아나시미)
 7. 사랑 나누기 '중고품 바자'에 많은 출품바랍니다.
미사 후 사회복지 분과에서 접수합니다.
 8. 본당 40-50대 남성 '사베리오회' 창립: 12월3일 후보축일 많은
관심과 성원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966,93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상근

◎ 너희는 주의 길을 두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1. 대림절 1일 피정: 6일 전 10시~4시, 강사-법석규 신부
 2. 건축 자문 회의: 9일 전 10시 사제관 본당 건축위원 시간임수
 3. 반회장 연수회: 6일 전 10시30분 대림절 피정과 함께
 4. 초·중·고 판공성사: 초등부-10일 후 2시30분부터
중·고등부-11일 매 미사 전후
 5. 농촌 살리기 김장 무우, 배추 판매: 11일 9시부터 배날
 6. 주공 노인대학 무료 급식: 8일 부녀회 봉사부 수고마담
 7. 가정 방문: 8일 오전 9시 10-4 후 2시30분 10-5
 8. 회의: 부녀회-7일 어머니미사 후
제대회-9일 후 3시, 꾸리아-오늘 후 2시30분
성체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청년성가대-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9. 전입을 환영합니다: 황옥자(엘리사벳) 10-1 ☎82-9849
코오롱APT-김백(야코보) 5동201호 ☎225-5931
송미화(골라타) 6동106호 ☎225-3875
김광춘(마지타) 5동105동 ☎225-6476
오세영(베네딕토) 1동1102호 ☎225-6072
 10. 축! 결혼: 박윤희씨 이후 신랑-박정희(시몬) 김중원씨 장녀
신부-김은실(아가다) 11일 12시 부궁화 예식장
 11. 축복미사: 5일 저녁 7시 코오롱 1동1102호 오세영(분도)대
6일 저녁 8시 코오롱 10동601호 김영주(바로르)대
- 지난주 봉헌금: 1,381,910원 □ 교무금: 2,323,000원

성서교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30분 전동 교육관, 요한복음 강의